

태양광 국제성능검사 · KS규격 도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태양광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한 국산제품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성능검사기관을 태양광 국제인증(IECEEPV) 성능검사기관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을 KS 규격으로 도입한다고 8월25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뛰어들던 군소기업의 난립으로 국제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제품이 유통돼 왔으나 앞으로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태양광 성능검사기관을 국제시험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기 위해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조명기기연구소 등 3개 기관에 2005년부터 5년간 25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이르면 2년 이내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8월말까지 태양광 인증에 필요한 국제표준 20종을 KS 규격화하는 것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독일,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태양광 국제인증 제도가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국제인증은 유럽, 미국 등에 태양광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제표준 도입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8/26>